

메시지 2

새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들이신 그리스도로 장비된 하나님의 단체적인 전투원임

성경: 엡 6:10-20

- I. 에베소서 5장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갈망을 만족시켜 드리는 신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것임을 계시하고, 6장은 새사람인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 전쟁을 치르는 단체적인 전투원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한 것임을 계시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한다.)
- A.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우리는 신부이자 전투원인 교회를 본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우리는 교회의 이 두 방면을 갖는다.
 - B.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서 우리는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을 보며, 그다음의 14절에서는 주님을 따라 전쟁터로 가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을 본다. 이 절들은 신부의 결혼 예복이 신부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분의 원수와 싸울 때 입는 제복이 될 것임을 가리킨다.
 - C. 신부로서 교회는 사랑과 빛이 필요하고, 전투원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가 필요하다.
- II.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단체적인 전투원인 교회, 곧 한 새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들이심을 계시한다.
- A.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게 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 엡 6:10-11.
 - 1.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세게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 자신 안에서는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와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만 싸울 수 있다.
 - 2.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는 몸의 어떤 개별적인 지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체적인 전투원인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개인들로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 엡 6:10-13, 약 4:7, 비고 빌 1:19, 롬 13:12-14, 16:20.
 - 3.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하늘들의 영역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고, 4장과 5장에서는 이 땅에서 그분의 몸 안에서 행하며, 그런 다음 6장에서는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있다.
 - 4.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것은 그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분의 몸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며, 그분의 능력 안에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에게 대항해 싸우는 것이다.
 - B. “그런즉 서서, 진리를 여러분의 허리띠로 두르고” — 엡 6:14상.
 - 1.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진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실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곧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에게 실재가 되시고 체험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살아 나타낸 그리스도 자신이다 — 엡 4:15, 21, 24-25, 요 14:6.
 - 2. 우리가 허리에 두르는 진리는 사실상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이다. 바울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본과 같아졌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반대와 적대적인 환경에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 엡 4:20, 빌 1:19-21상.
 - C. “의의 가슴받이를 착용하고” — 엡 6:14하, 고전 1:30, 램 23:6.

1. 의의 가슴받이이신 그리스도는 가슴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양심을 보호하신다. 우리를 비난하는 자인 사탄에게 대항해 싸울 때, 우리에게는 피로 정결하게 된 양심, 곧 아무런 거리낌 없는 양심이 필요하다 — 히 9:14, 10:22, 행 24:16.
 2. “그 형제들은 어린양의 피(로) ... 그를 이겼으며”(계 12:11). 사탄의 비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나는 나의 온전함에 의해서나 심지어 거리낌 없는 양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린양의 피로 인해서 비난하는 자인 사탄을 이긴다. 나는 의의 가슴받이로 사탄의 비난들로부터 보호받는다.”
- D.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고” — 엡 6:15.
1.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 사람들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셨다. 이 화평은 우리의 복음이 되었다. 이 화평의 복음은 견고한 기초로 세워졌고, 이 견고한 기초는 우리 발에 신을 수 있게 예비된 것이다 — 엡 2:13-17.
 2. 우리는 화평 안에서 있음으로써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 우리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이나 우리와 다른 믿는 이들 사이의 화평을 잃는다면 싸울 입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 골 3:15, 빌 4:6-7.
- E.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그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엡 6:16, 고후 4:13, 히 12:2, 비교 빌 2:13.
1. 불화살은 사탄의 유혹, 제안, 의심, 질문, 거짓말, 공격 등이다. 우리는 이러한 불화살을 꺼 버리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잡아야 한다.
 2. 우리는 굴복되고 부활한 의지로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함으로, 주님의 나타나심이 마귀에게서 나온 일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 고후 4:13, 요일 3:8, 마 16:22-23, 눅 4:39, 마 12:28, 눅 10:17, 19.
 3.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함으로, 주님의 죽음이 사탄을 멸망시켰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 히 2:14, 고전 15:54-58, 갈 2:20, 롬 6:3-6.
 4.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함으로, 주님의 부활이 사탄을 부끄럽게 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 골 2:12-15, 20, 3:1, 요 14:30, 빌 3:10, 사 61:10, 스후 3:4-5.
 5.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함으로, 주님의 승천이 사탄의 권세를 초월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 엡 1:19-23, 2:6, 6:11, 13.
 6. 우리는 실재이시고 살아 계시며 현존하시고 언제나 유용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 막 11:22, 계 1:18.
 7.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야 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하시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징벌하거나 해치거나 우리에게 손실을 겪도록 하시려는 의도가 없다 — 롬 8:28-39.
 8.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고 항상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시다 — 고전 1:9, 요일 1:9, 딤후 1:2.
 9.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 엡 3:20.
 10.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한다 — 비교 살전 5:24, 엡 6:17-18.
 11.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한다 — 엡 1:5, 9, 11, 롬 12:1-2, 히 10:5-10.
 12.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는 우리의 실수조차도 선을 이루어 낸다 — 롬 9:19-29.
- F. “구원의 투구(를) ... 받아들이십시오.” — 엡 6:17상.
1. 구원의 투구는 악한 자가 우리 안으로 쏘는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 곧 우리의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투구, 그러한 덮개가 하나님의 구원이다.

2. 사탄은 두려움, 위협, 근심, 걱정, 그 밖에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사상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 주입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취해서 착용할 수 있는 덮개이다. 이러한 구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다 — 요 16:33.
- G.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엡 6:17하.
1.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에 속한 여섯 가지 항목 중에서 그 영의 검만이 유일하게 우리 밖의 원수와 우리 안의 대적자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검으로 우리 밖의 원수와 우리 안의 주관적인 대적자를 산산조각 낸다.
 2. 그 영이시며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패배시키고 죽이는 공격 무기인 검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는 동안에 결국에는 최악의 적인 자아가 죽음에 넘겨질 것이다.
 3. (성경 안의 항상 있는 말씀인) ‘로고스’가 우리에게 (그 영의 현재의, 즉각적인, 살아 있는, 개인적인 말씀하심인) ‘레마’가 될 때, 이 ‘레마’는 대적자를 산산조각 내는 검이 된다.
 - a. 우리가 죽이는 능력을 가진 말씀을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욱더 죽음에 넘겨진다.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에 의해 내적인 대적자가 죽임당한다.
 - b.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은 영양 공급을 위한 것으로서 신부를 아름답게 하는 결과를 낳고 (26-27절), 6장에서 말씀은 죽이기 위한 것으로서 교회가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17-18절).
- H.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 엡 6:18.
1.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투 장비의 일곱 번째 항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다른 항목들을 적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2. 기도는 하나님의 전투 장비이신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바로 기도에 의해 전투 장비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된다.
 3.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하는데, 이것은 기도가 전쟁, 전투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사탄, 이 두 편은 서로에게 적대적이며, 제삼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로 구성된다 — 골 4:2, 엡 6:18, 마 26:41, 비교 엡 5:14, 롬 13:11-14.
 4. 하나님 편에 서서 사탄에 대항해 싸우려면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한다. 이렇게 꾸준히 힘쓰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온 세상의 흐름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 요일 5:19, 비교 요 14:30, 16:33.
 5.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쓰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기도 생활에 관해 주님께 서원해야만 한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주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해 필사적입니다. 제가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저를 기도의 영 안에 지켜 주소서. 제가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간과할지라도, 저는 당신께서 이것을 잊지 않으실 것임을 압니다. 기도에 대해서 저에게 거듭거듭 상기시켜 주소서.”
 6.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것에는 많은 유익이 있다.
 - a.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둘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골 3:2, 히 7:25, 8:2, 비교 행 6:4.
 - b. 기도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공훈을 받고 은혜를 얻어 때맞추어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길이다(히 4:16). 우리가 기도함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 은혜는 우리 안에서 흐르고 우리를 공급하는 강이 될 것이다 — 영한 동번 찬송가 770장 (한국복음서원 찬송가 557장).
 - c.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할수록 주님과 하나님의 하나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누리게 되며, 주님과 더 많은 교통을 갖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보상이나!